

# 박물관에 둘러앉은

석장리시대 옥체제

# 3

날짜 :

학교 :

이름 :

## • 뗀석기가 뭐죠?

하나

인류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구석기인들은 돌과 돌을 부딪혀 떨어진 조각들의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듯 돌과 돌을 부딪혀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구석기인의 도구를

① ( )석기 라고 합니다.



작은 격지를  
몸돌에 붙이면 하나의  
돌이 되겠죠?

**tip** 돌을 깨거나 돌조각을 떼어 낼 때 떨어져 나간 부분을 격지라고 하고 나머지 원래 돌멩이를 몸돌이라고 합니다.  
석장리박물관 전시유물에서 격지와 몸돌을 찾아보세요.

둘

석장리에서 출토된 뗀석기들  
아래 뗀석기를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 )



( )

( )



석장리박물관  
SeokJangNi Museum

# • 좋은 돌에서 좋은 석기가 난다•

하나

여러분이 길에 가다 발에 차이는 돌과 박물관에 전시된 석기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구석기인들은 석기로 만들기 좋은 돌감을 찾아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군요.

석기로 만들기 좋은 돌은 따로 있었다는군요. 좋은 돌이어야만 좋은 석기가 나온다는 이치를 구석기인들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석장리박물관 전시실 ‘석기만들기 및 쓰임새장’에서 석기 만들기에  
주로 쓰인 돌감의 번호를 보고 이름을 적어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둘

흑요석이란 돌은 화산활동을 하는 곳에서만  
발견된답니다. 흑요석은 깨졌을 때  
매우 날카로워서 옛날 스페인 원주민들은  
이 흑요석으로 칼을 만들어 머리카락도  
자르고 면도도 했다고 합니다.

**tip** 흑요석의 뜻은 까맣고 빛나는 돌이란 뜻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